

김성주의 모닝카페



총각네 아재가게



곰배령



김수미의 쇼킹



‘막장’은 가라, 따뜻한 예능·드라마 온다

채널A는 지상과 편성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편성이 대거 시도됐다.

오전에는 연예인 토크쇼를, 저녁에는 농촌과 VJ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주말에도 연예인 일색인 프로그램 편성을 탈피했다.

특히 보노나 드라마보다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 편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예능 프로그램 역시 교양 프로그램과 구분이 쉽지 않을 만큼 훈훈함과 인간미를 강조한 프로그램이 많다.

1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유쾌한 웃음과 알찬 정보, 따뜻한 감성까지 전해줄 채널A의 주요 교양·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교양

오픈스튜디오서 전하는 아침 정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잔잔한 감동

채널A 교양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소통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월~금요일 오전 8시)는 생활 시사, 정보, 재미는 물론,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제 현상의 ‘의외성’과 걸리지 않은 ‘야생성’을 강조한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사방이 유리 디어센터의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방송돼 누구나 생방송 현장을 볼 수 있다. ‘너는 내운명’(월~금요일 오후 8시)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잔잔한 감동과 편안한 웃음이 담긴 에피소드를 담백하게 그린다.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월~금요일 오후 6시)는 멋진 다섯 남자가 나서 주부를 돕는 시집 모습으로 변신시켜 주는 토틸 뷰티 솔루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는 인테리어 개조, 무미건조한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1일 남편 대어, 명품 선물을 받을 수 있는 MC와의 퀴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성과 시청률을 잡을 예정이다.

특히 5000만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21세기 신문고를 표방하는 ‘생방송,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월~금요일 오전 10시10분)은 지금껏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격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이 밖에도 일요일 오후 10시30분에는 삶의 진정성을 담아냄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는 명품 다큐멘터리 ‘채널A 다큐 스페셜’과 1대1 전화 의뢰상담 형식으로 각 분야 최고 명인들이 출연하는 ‘생방송, 친절한 의사들이’ 금요일 오후 11시1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드라마

막장 난무하는 세상 그들위한 쉽표

남모르는 그녀들의 ‘컬러풀 이야기’

채널A 드라마는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막장 드라마를 배격한다.

‘천상의 화원-곰배령’(토~일 오후 7시50분)은 아름답고 소박한 자연 속 마을 곰배령에서 펼쳐지는 가족과 이웃간의 화합과 사랑, 상처 극복과 치유에 관한 전통 휴먼스토리다. ‘천상의 화원-곰배령’은 총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잠시나마 시청자들을 작은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곰배령으로 데려다 줄 감동의 휴먼 전원 드라마다.

현대 여성의 심리를 개성적으로 풀어낸 ‘컬러 오브 우먼’(월~화 오후 9시20분)은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 심리, 여자들이 한껏

감추고 있는 발칙한 욕망들을 심도있게 파헤치며, 현실과 맞닿아 있는 흥미진진하고 도발적인 화두들로 유쾌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총각네 아재가게’(수~목 오후 9시20분)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건강한 청년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는 드라마로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 도전하고 성공하는 싱그러운 드라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한 사랑의 향기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예능

과거 국가대표 선수 새로운 도전서

장동건·이병헌 등 초대 토크쇼까지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은 새로운 포맷으로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웃음을 선사할

다. 버라이어티 개그쇼를 표방하는 ‘개그시대’(화 오후 10시30분)는 주어진 주제에 맞는 콩트, 성대모사, 노래 등 한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개그 소재 역시 다양해 1980~90년대 추억의 개그부터 2011년 현재 우리 사회를 풍자한 시사개그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채널A가 내건 첫 토크쇼인 ‘김수미의 쇼킹’(수 오후 10시30분)은 조인성, 장동건, 이병헌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류스타를 중심으로 거물급 게스트를 초대해 기존 다른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평소 시청자들이 궁금해 했던 각종 이야기들을 여과없이 공개한다.

‘불멸의 국가대표’(일 오후 6시40분)는 100% 리얼리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자는 기획 의도에서 출발했다. 과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특별한 편을 거친 후 회 다양한 종목에서 대결을 펼친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광주일보 채널A 첫 리포트 취재를 위해 여수에 급파된 방송취재팀이 강동석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엑스포 취재를 끝내고 본사 스튜디오에 복귀한 방송취재팀이 마이크 믹싱 및 영상편집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엑스포를 담아라”... 숨가쁜 18시간

■ 광주일보 통합 뉴스룸 제작회의서 첫 방송뉴스 탄생까지

10:30 30일 오전 10시30분. “회의합시다”하는 정재경 편집부장의 목소리가 광주일보 편집국 통합 뉴스룸안에 울려 퍼진다. 부장회의를 알리는 소리다.

자기 부서 기사계획서를 출력한 부장들이 속속 편집국장실에 모여든다. 부장회의는 통상 매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광주일보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됐다. 이유는 “다음날 방송에 내보내야 할 아이템들을 더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편집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은 신문 뉴스만 다루던 기자들이 방송 리포트를 하게 됐고 신문 외에 리포트감을 찾기 위한 고민을 더 하게 됐다.

또 기자 개개인의 외형변화도 눈에 띈다. 우선은 신문사 특성상 자유스러운 복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정장차림이다. 시청자들에게

단정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지배한 결과다.

그리 크지 않은 편집국장실 안에 조경한 편집국장을 필두로 정후식 정치부장, 박치경 사회부장, 김일환 방송보도부장, 김미은 문화부장, 정재경 편집부장, 나명주 사진부장, 홍종용 조사부장이 빙 둘러앉았다.

회의실은 사뭇 긴장돼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의에서 광주일보 방송송개국일인 오늘 뉴스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독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채널A 뉴스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개국 뉴스가 그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물론 오가는 말들이 고스란히 다음 날사 신문에 인쇄돼 찍혀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부장을 필두로 기사계획을 보고한다. 여론매체, 체육, 경제를 거쳐 사회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정치부장이 기사계획을 보고할 즈음 방송보도부장이 끼여든다.

“오늘 정치부 보고중 여수 엑스포

6개월 앞으로를 내일 개국용 리포트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부장들이 하나 둘 끼여들어 논의에 불을 붙인다.

“주제를 집중해서 리포트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여수에 기사를 보내지요” 논의가 무르익을 무렵 광주일보 채널A 방송의 첫 뉴스가 그 속살을 드러낸다. 편집국장장은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OK사인을 대신하고 방송 보도부장은 회의 중간에 취재지시를 위해 밖으로 나간다.

12:00 신문의 기사 계획이 확정되고 모든 부서가

지면 제작에 돌입하는 순간 여수 엑스포 관련 방송취재 계획을 전달받은 임동을 취재기자와 이기현 카메라 기자는 방송보도부장에게 세부 취재 계획을 보고한다. 보도부장은 취재계획에 대해 보충취재를 지시하고 두 기자의 출장에명령부에 사인을 한다.

그 순간 박성태·김창환 두 여수주재기자의 휴대폰이 불이 난다. “여수 엑스포 관련 조직위원장 인터뷰 사전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여수 엑스포 관련 자료들을 먼저 확보해 주십시오” 본사기자들의 주문이 떨어지자 두 여수주재기자는 여수시청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뛰어가 자료확보를 하고 인터뷰 약속을 하는 등 방송뉴스취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다.

14:00 채 2시간이 되지 않아 본사의 기자들이 여수에 들이닥친다. 이미 준비가 된 인터뷰가 진행되고 여수 엑스포가 열리는 오동도 등이 차례로 영상에 담긴다. 여수 곳곳을 누비다 보니 벌써 촬영은 4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좋은 영상을 담겠다는 일념에 여벌로 가져간 카메라 메모리까지 다 채워진다.

여수시와 조직위로부터 향후 계획을 브리핑받고 한 보따리가 넘는 관련 자료들을 받을 즈음 취재는 어느 정도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제부터는 시간싸움이다. 취재를 마친 두 기자가 차를 달려 본사에 복

귀한 것은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 짙어온 영상을 돌아오는 차에서 이미 작성된 리포트계획대로 편집을 하고 광주일보 15초에 마려된 방송 스튜디오에서 음성을 입힌다.

24:00 1분 30초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뉴스를 선보인다는 본사의 방송뉴스 가이드라인에 맞춰 2분여에 달하는 심도있고 값이 있는 리포트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광주일보 60년사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동안 갈망했던 신문·방송 통합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순간이다.

완성본이 스튜디오로 조정부스 모니터에 띄워 올려지고 HD 초고화질의 리포트가 플레이 된다. 순간 조정실은 침묵이 휩싸인다. 시사회가 끝나갈 무렵 이를 지켜보던 편집국장을 필두로 한 여러 간부들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다. 최종 완성본이 채널A 본사 사회부 데스크로 전송되는 마지

막 시그널을 확인한다.

“휴~ 드디어 완성이다.” 모두의 긴장의 끈이 풀리고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반향한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자정을 넘어 새벽을 치닫고 있다. 삼삼오오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구나” 스튜디오 벽에 걸린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드디어 광주일보 방송시대가 신세벽을 맞고 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